

시적 거주와 세계내 존재의 언어기호적 치환

- 슐츠의 '장소성' 이론을 통한 현대건축의 비평적 이해 -

卞泰浩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 조교수)

1. 서론

현대건축(modern architecture)을 심미적에서 보다 의미적 측면으로 논할때면, '지역건축'(regional architecture) 혹은 '지역주의'(regionalism)란 말은 지금에 있어 많은 의미를 시사하게 된다. 그러나 건축의 지역적 특성에 대한 강조가 어제, 오늘만의 관심은 아닐 것이다. 다시말해, '모더니즘'의 이론적 실천이 가장 팽배했던 금세기 초와 중엽에서도 과학의 절대적 믿음과는 대조된 전통적이고 환경적인 가치에 대한 추구가 꾸준히 있어 왔으며,¹⁾ 특

히 현대건축(Modern architecture)에 대한 강도 높은 비평들과 함께 지난 30여년 사이에, 비록 이론가와 건축가들 사이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이해와 그 표현방법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에 보여지는 현대건축의 여러 표현적 성향들은 넓게는 국제적 혹은 미래지향적 특성에서 역사적 혹은 지역적 특성으로, 그리고 양식-표현적에서 의미-표상적 움직임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다. 이 경우, 건축가의 중요한 영감적 근원으로 장소의 특수성이나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정신 그리고 그 단편들의 형상적 표상화에 대한 강조는 건축이론가 크리스티안 노버그 슐츠(Christian Norberg-Schulz)의 '장소성'(place)개념이나 케네스 프램톤(Kenneth Frampton)의 '비평적 지역주의'(Critical Regionalism) 정신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다. 그들의 이론은 특히, 국수적 성격을 띤 지난 지역주의의 운동과는 달리, 건축의 본질에 대한 재-이해 그리고 상실해 가는 장소성의 의미나 인간의 생존적 힘의 근원으로 존재인식의 회복을 통한 건축의 새로운 사고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기에 지금에 우리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²⁾ 두 이론가 모두 새로운 지역건

1). 지역적인 환경특성에 대한 관심은 인류학이나 사회학에서의 오랜 학문적 연구는 물론이고, 현대건축가들 속에서도, 예를들어, 라이트(Frank Lloyd Wright)의 주택설계에서 볼 수 있는 prairie style이나 알토(Alva Alto)의 건물이 보여주는 '핀란드적'(Finnish)인 건물 그리고 현대건축이 양식적으로 가장 발전한 1930년대의 코르부지에(Le Corbusier)의 두 주택설계 - 칠레에 있는 the Maison Errazuris와 Toulon 근교에 있는 the Villa Mandrot - 에서도 볼 수 있다. 특히 위의 두 작품에서 코르부지에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돌가루로 만든 거친 블록이나 대패로 다듬지 않은 나무와 같은 지역적인 천연재료의 사용과 함께 주위 조경을 고려한 구성적 배치를 통하여 환경적인 연맥성(context)을 강조하고 있다.

축으로의 이론적 개념과 구체적인 방법을 논리-비평적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으나, 슬츠는 개념적 측면에서 그리고 프래톤은 방법론적 측면에서 그 각각의 특성을 보이는 듯하다.

이들이 지닌 건축적 사고의 특징은 철학가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실존적 현상학'(existential phenomenology)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특히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슬츠의 '장소성' 개념을 이해하는데에는 그가 반복적으로 사용, 강조하고 있는 몇가지의 철학적이고 기능적 의미를 지닌 용어들 - 'genius loci,' 'dwelling,' 'thing,' 'poetry,' 'three human functions,' 'setting-into-work,' 'typological figure' - 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 같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지역문화와 건축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방법의 광범위한 해석보다, 위에 제시된 용어들의 재해석을 통한 슬츠의 건축적 사고에 대한 개론적 이해로 본론의 서술과정을 한정하고, 이를 통해, 특히, 그의 '장소성' 이론과 건축에 대한 존재적 '거주'(dwelling)의 정신이 오늘의 표현중심적 건축상황에 어떻게 대조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그 가능성을 제시하려는데 논고의 목적이 있다. 그 서술과정으로 사용된 슬츠의 건축적 사고에 대한 분석은 크게 사고와 기능적 개념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첫째(part 2, 3)는 그의 거주에 대한 실존철학적 사고방법을 그리고 둘째(part 4)는 그가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건축 개념에 대한 이해를 개론적으로 다루고 있다. 본 논문은 이전에 발표된 필자의 논문과 용어 사용에 있어 많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관계로, 그들에 대한 중복설명을 피하기 위해 주석에 참고부분을 밝히도록 하였으며, 그 외의 의미-함축적인 몇몇 용어의 사용 또한 그 설명이 또 다른 논고의 주제가 되므로 논고의 서술진행상 주석에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간략한 참고문헌

2). '존재'의 의미에 대한 설명이나 존재인식에 대한 중요성의 문제는 Heidegger의 책 '존재와 시간' 혹은 Schulz의 여러 책에서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으므로 이곳에서의 설명은 제외하도록 한다.

만을 남기도록 하였다.

2. 존재영역으로의 'Genius Loci'

건축에 있어 '지역주의'란 말은 간혹 현대공학이나 도시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 발전과 더불어 지난 '현대건축'(Modern architecture)이 지향하여온 어떤 통일된 성격의 움직임과는 상반된, 그래서 원시적 혹은 자연 친화적인 소박한 단어들로 대신 설명되어질 수 있는 비논리적이고 감성적인면을 중요시한 건축개념으로 받아 들여지기도 한다. 더욱이 현대 정보통신 및 교통수단의 발달로 세계문화의 개방화 속에서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에 대한 강조는 현대사회가 지닌 산업 중심적 성격과의 괴리로 인해 그들의 이론적 실천이 어려우며, 결국에는 그 스스로 국수적인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리라 간혹 비판되기도 한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반세기의 건축역사를 돌이켜 볼때, 현대건축의 공학에 대한 절대적 믿음으로인한 세계문화의 표준화와 전통에 대한 독단적 해석 그리고 마침내 심미적 상업상품으로의 가치전락속에서, 건축의 지역적 경향에 대한 여러 사고의 분석과 새롭게 전개되는 비평적 이해는 그것이 전통문화의 보존과 환경에 대한 보전적 측면에서의 단순한 감성적 사유에서가 아니라, 이를 통한 건축의 본질에 대한 재고와 더 나아가 현대건축의 새로운 표상적 측면에 대한 방향제시를 하고 있기에 지금에 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⁴⁾

3). Paul Greenhale. (ed.), Modernism in Design. London: Reaktion Books Ltd., 1990. 건축에 있어 이러한 초기 '지역주의'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20세기 '현대 운동'(Modern Movement)을 1932년 뉴욕의 현대미술관(MOMA)에서 열린 국제양식(The International Style)이라는 전시회를 전후로 Paul Greenhale이 분류한 두가지의 개념적 단계 - 초기 이론적 시기와 후기 양식적 시기 - 중 초기 'Modernism'의 미학적 특성들을 참조.

4). 필자가 표현(expression)이라는 말과는 차이를 두어 본 논고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상(representation)이라는 말의 어원적 의미에 대한 설명은 대한건축학회논문지 94년 6월호에 발표된 필자의 글이나, 좀더 자세한 이해를

이러한 사고적이고 방법론적인 방향제시로, 슐츠는 1980년 그의 저서 “Genius Loci: Towards a Phenomenology of Architecture”에서 ‘인간,’ ‘환경’ 그리고 ‘건축’ 사이의 의미론적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건축의 기본행위는 ‘장소’(genius loci - spirit of place)의 근원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슐츠가 사용한 ‘genius loci’란 말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철학의 오랜 과제였던 ‘존재’에 대한 두 곳으로 부더의 해석적 관점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 하나는 이 말이 유래한 로마시대의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하이데거의 ‘거주’(dwelling)에 대한 사색의 방법이 그것이다. 다시말해, 이 말이 유래한 로마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 모든 개체적 존재는 그 자체의 보호적 영혼인 ‘genius’를 내포하고 있고, 이러한 영혼적 힘은 사람들이나 장소에 출생에서 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생명적 힘의 근원이 되어 그들의 특성과 본질을 결정짓게 된다. 그들은 환경을 유한적인 성격들의 구성으로 경험하였을 뿐 아니라, 생존이란 이 경우 물질적인 동시에 정신적으로도 장소와 바람직한 관계에 의존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로마의 ‘존재’에 대한 인식개념은 하이데거에 있어 인간이라는 ‘운명체’(mortals)가 실존을 위해 필연적 기초로 의존하게 되는 ‘거주’에 대한 실존적 인식개념과 함께 슐츠의 건축적 사색속에서 융합되어진다.⁵⁾ 그래서 ‘genius loci’란, 슐츠에게 있어, 인

간과 장소 사이의 적절한 관계제공을 통해 인간이 거주하도록 하는 ‘정신적 힘’(spiritual force)인 동시에, 예술가에게 영감을 제공하는 정수이며, 무엇보다 장소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운명체’가 생존할 수 있는 존재영역으로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genius’ 또한, 인간이라는 ‘운명체’의 거주적 유형체, 즉 건축물이 수집되고 재구성되어진 존재적 의미들의 종합된 ‘실체’(thing)로 건조되기 위한 가장 필연적 영역으로, 그 유명한 “실체란 무엇이며(what a thing is),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what it want to be)”란 루이스 칸(Louis Kahn)의 건축본질에 대한 질문에 가능한 대답을 제시하기도 한다. 다시말해, 슐츠의 ‘장소’ 혹은 그에 완전한 존재적 소속을 의미하는 하이데거의 ‘거주’의 본질적 특성을 의미를 지닌 ‘실체’(thing)들을 ‘모으는 것’(gathering) 것으로, 건축 또한 이러한 ‘실체’들을 모으고 재구성하여 ‘장소성’의 회복을 이루고, 다시 사람들에게 이를 통하여 ‘감성적 보호인식’(sense of emotional security)을 제공하는 것이다.⁶⁾ 그래서 건축의 역할은 지금의 열린세계에 존재하는 뿌리없는 실체들에 대한 양적 인식보다, 복잡한 혼합체 자체로의 질의 인식을 통해 그리고 이러한 도달을 위해서는 현상학적 태도에서 현상학적 태도로의 치환을 통해 인간을 장소에 귀착시키고, 이러한 ‘소속’(belonging) 내에서 그의 ‘존재적 발판’(existential foothold)을 인식하도록 돕는 것으로 이해 가능하다. 이 경우, 건축가가 되는 것 또한 건축의 존재적 언어를 다시 이해-정립하고 새로운 형태의 창조보다 각각의 대상을 형성하는 통일적 구조로의 ‘형태’(Gestalt)와 그 ‘형상적 질’(figural quality)에 의해 세계를 표상해 내는 것이다.⁷⁾

위해서는 Arthur Schopenhauer. *The World as Will and Representation*. New York: Dover Publication, 1958, 혹은 Martin Heidegger. *Basic Writing*. New York: Harper & Row Publication, 1977을 참조.

5). 하이데거에 있어 인간과 같은 운명체가 거주한다는 의미는 ‘4개의 열림’(fourfold - sky, earth, divinities, mortals)속에서 실존함을 나타낸다. 여기서 ‘거주’(dwelling)의 기본적 특성은 예비하고, 보존-간직하고, 그래서 유지하는 것으로, 그 운명체는 그의 존재적 본질속에 이러한 열림들을 보존-유지하고 다시 그것들을 새롭게 출현시킴으로 진실로 거주하게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이데거의 ‘거주’의 개념에 대한 사색의 방법은 Martin Heidegger. “Building Dwelling Thinking,” in *Basic Writings*. David Farrel Krell (trans.), New York, 1977을 참조.

6). M. Heidegger와 건축가 Louis Kahn의 건축에 대한 사색방법의 논의는 Cristian Noborg-Schulz. “Kahn, Heidegger and the Language of Architecture.” *Opposition*, no.18, Fall 1979 혹은 대한건축학회논문지 94년 7월호에 발표된 필자의 글을 참조.
7). C. N. Schulz. (1980a), p.18.

이러한 의미로의 'genius loci'는, 다시, 솔츠에게 있어 시각화(visualization)와 '보완화'(complementation)라는 건축적인 개념을 통해 형태적으로 구체화와 지속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시각화'란 주어진 장소의 특성을 건물을 통해 반복 혹은 강조하는 것인 반면, '보완화'란 그 환경에 부족한 어떤 것을 더해 주어서 숨겨진 특질이 나타나도록 하거나 의미를 지닌 무엇을 형성하는 것으로, 그러나, 두 형식화들이 특정 '기호'(sign)가 나타내는 무엇에 대한 '상징화'(symbolization)나 어떤 의미의 전달을 위한 '표상화'(representation)를 가리키지는 않는다. 그것은 다만 현대건축이 보여주는 기능과 심미충족과는 달리 토속건축물(vernacular architecture)이 보여주는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 - '장소의 구성'(a making of places) - 로 여겨질 뿐이다.⁸⁾

3. '거주'와 '시학'

이러한 '장소의 구성'에 있어 건축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기디온(Sigfried Giedon)의 언급처럼 '상상'(imagination)의 힘일 것이다.⁹⁾ 그리고 이러한 상상의 힘은 '보여진 것'(what is seen)을 '의미지닌 이미지

들'(meaningful images)로 변형하는 현상학적 해석능력을 요구하고 있다.¹⁰⁾ '현상학'(phenomenology)이란 본래 '무엇이 주위에 존재하느냐'(what is near)를 고려하고 사고하는 관점으로, 그것은 건축에 있어 인간의 존재성에 대한 문제, 즉 '세계내 존재'(being-in-the-world) - '거주'(dwelling) - 에 대한 새로운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¹¹⁾ 솔츠는 건축행위의 기본목표로 삼는 거주의 의미를 하이데거의 "건물 거주 사고"(Building Dwelling Thinking)에 대한 사색을 재해석하여 그 어원에 따른 정의를 다음과 같이 다시 정리하고 있다.

"거주하다(dwell)란 지체시키다 혹은 머무루다를 의미하는 고대 스칸디나비아 말로 'dvelja'에서 유래했다. 유사하게 하이데거는 독일어의 '거주하다'(wohnen)을 '머물다'(bleiben)와 '스스로 체류하다'(sich aufhalten)에 관련시켰다. 더욱이 그는 고트말의 'wunian'은 '평화스럽게 있다' 혹은 '평화스럽게 머무르다'를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하이데거는 거주하다(dwelling)는 말이 위협으로부터 보호되어진 장소에 평화스럽게 머물다를 의미하며 이를 설명하기 위해 이러한 언어학상의 관계를 사용하고 있다. ... 그는 [또한] '건물'(building)을 지칭하는 영어와 독일어의 고어(古語)로 'buan'은 거주하다(dwell)를 의미하며, 그것은 직접적으로 동사 존재하다(to be)와 관련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나는 존재한다(ich bin)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존재하다(bin)가 속해있는 고어(古語) 짓다(bauen)는 대답하고 있다; 나는 존재한다(ich bin), 너는 존재한다(du bist)는 나는 거주한다(I dwell), 너는 거주한다(you dwell)를 의미한

8). 이러한 예로 솔츠는 이탈리아의 언덕위의 마을이 고유한 지형적 구조를 들어내고 있음과 부락의 울타리들이 지닌 기능의 보완적 인위성을 통해 '시각화'와 '보완화'를 각각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그리이스 신전에서처럼 건축물이 세계를 열어내고 그리고 실체가 그 자체로의 모양을 지니도록 하는 존재적 형식으로, 특정한 지역에 관계된 모든 형태들은 위의 두과정을 통해 비슷한 특성을 공유하게 된다. 반면, '상징화'란 이러한 '들어내어 놓다'(revelation)라는 기본적인 행위에 의해 파생적으로 유도되어지는 개념일 뿐으로, 솔츠가 강조하는 '장소성의 구성'(making of place)을 위한 건축의 존재언어들이란 상징화에서 강조하는 통상적인 기호들의 우연적 방식에서 보다 '시각화'와 '보완화'가 서로 깊이 연관된 하나의 응결체와 같은 것을 의미하게 된다.

9). Sigfried Giedon. "The State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The Need for Imagination." Architectural Record, February 1954. 참조.

10). John Lobell. *Between Silence and Light: Spirit in the Architecture of Louis Kahn*. Boston: Shambhala, 1985 혹은 Cristian Noberg-Schulz. "Kahn, Heidegger and the Language of Architecture." *Opposition*, no.18, Fall 1979을 참조.

11). Martin Heidegger. "Building Dwelling Thinking," in *Basic Writings*. David Farrel Krell (trans.), New York, 1977을 참조.

다. 우리 인간이 지상에 존재한다는 방식과 같이 너는 존재한다(you are)와 나는 존재한다(I am)는 것은 거주함(buan, dwelling)을 나타낸다. 우리는 거주하다가 유형의 건축 혹은 '실체'(thing)처럼 세계를 모음(gather the world)을 의미하고, 건축물의 원 행위가 울타리를 두르다(umfriedung) 혹은 담을 둘러치다(enclosure)를 의미함으로써 결론지을 수 있다."¹²⁾

숄츠에게 있어, '거주'는 인간의 존재가 발생되는 장소의 '창조적-특성'(genius)에 완전한 소속을 나타내며, "장소란 유형적 출현과 함께 실체(thing)를 모으는 것(gathering)"을 의미한다.¹³⁾ 철학자 하이데거에 따르면, '실체'의 특성

또한 세계를 '모으는 것'으로, '실체'가 부여받는 의미성은 그것이 무엇을 모으느냐에 의존되어 있다.¹⁴⁾ 여기서 모으는것은 무엇을 준비하여 구성하는것으로, 실체의 성격을 특징지을 뿐 아니라 그 이미지를 결정짓기도 하는데, 이런 이유로, 숄츠에게 있어, 건축을 포함한 어떠한 예술작품도 그 본질적 특성은 존재적 의미들의 단편을 과거와 미래의 시간적 초월을 통하여 모으고 현재의 시간속에서 재구성하는 행위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품들이 궁극적으로 의미, 표상하게 되는 것은 수집된 실체들이 만들어 내는 'imago mundi'로, 이들은 본질적으로 문학에 있어 가장 시원(始原)적 형태로 제시되는 '시'(poetry)와 동일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이미지로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¹⁵⁾

12). 본 인용의 부분은 번역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미세한 이해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원문을 참고로 남기도록 하였다. "Dwelling is derived from the Old Norse *dvelja*, which meant to linger or remain. Analogously Heidegger related the German 'wohnen' to 'bleiben' and 'sich aufhalten'. Furthermore he points out that the Gothic *wunian* meant to 'be at peace', 'to remain in peace'. ... Heidegger uses these linguistic relationships to show that *dwelling means to be at peace in a protected place*. ... he (Heidegger) points out that the Old English and High German world for 'building', *buan*, meant to dwell, and that it is intimately related to the verb *to be*. 'What then does *ich bin* mean? The old word *bauen*, to which the *bin* belongs, answers: *ich bin, du bist*, mean: I dwell, you dwell. The way in which you are and I am, the manner in which we humans are on earth, is *buan*, dwelling.' We may conclude that dwelling means to gather the world as a concrete building or 'rthing', and that the archetypal act of building is the *Umfriedung* or enclosure." Schulz. (1980c), p.87.

13.) "A place is a gathering thing with concrete presence." Ibid.. p.85. 사실 자체(Sach selbst): 현상학의 모토로서 '사실 자체로'(zu den Sachen selbst)란 표현이 자주 사용된다. 이때 독일어 Sache 혹은 영어로 번역된 경우 thing이란 외적인 경험적 사실이 아니라 소위 '현상'이다.(한전숙, "훗설에 있어서 객관성" 194면 참조) 그러나 Sache라는 개념이 이런 의미로만 사용된 것은 아니며, 실체에 있어 "사실 자체로!"란 표현은 훗설(Edmund Husserl) 스스로가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이데거가 편집한 훗설의 "엄밀한 학으로의 철학"에서 만들어 낸 것이라고 라이너(H Reiner)는 주장한다.(이영호, "현상학의 이념 / 엄밀

한 학으로서의 철학", 194면 참조) Sache는 실체적, 경험사실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 보편적 본질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어서 훗설의 개념사용의 애매성이 있다. 그래서 Sache 혹은 thing은 사실, 사상(事象), 사물 등으로 번역할 수 있으나, 숄츠가 이론적으로 기초를 두고 있는 Heidegger에 있어 thing = res = ens = an entity을 의미하므로 여기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everything) 즉 '실체'란 단어로 필자는 해석하기로 한다.

14). 하이데거는 건축또한 실체이며, 실체(thing)의 본질적 특성은 무엇을 '모으는 것'(gathering)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대한 좀더 구체적인 실존현상학적 해석은 Martin Heidegger. "The Thing," in Poetry, Language, Thought. Albert Hofstadter (trans.). New York: Harper & Row, 1971을 참조.

15). 건축과 시학의 관계에 대한 숄츠의 견해는 Heidegger의 철학적 사고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 예를 다음의 Heidegger 글에서 단편적으로 엿볼 수 있다. "Poetry does not fly above and surmount the earth in order to escape it and hover over it. Poetry is what first brings man into the earth, making him belong to it, and thus brings him into dwelling." Heidegger (1971), p.218. 하이데거에 있어, 건축과 시학의 관계는 이들의 어원에 대한 연구, 즉 이들은 동일 어원에서부터 출발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예술과 시학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철학의 폭넓은 해석과 또다른 논문 주제로의 설명을 요구하므로, 여기에서는 이에 대해 대표적으로 읽을 수 있는 참고문헌을 소개하는 것으로 설명을 생략한다. Ernst Cassirer. The Philosophy of Symbolic Form.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5. Hans Blumenberg. Work on Myth. Cambridge,

여기서 ‘시’(poetry) 혹은 ‘시학’(poetics)이란 ‘진실’(truth)에 대한 비유 상징적 표현 또는 투영적 의미로 ‘열림으로의 열림’(the openness of the Open), 즉 존재적 진실에 대한 표상으로 무엇을 ‘들어내어 놓다’(brung forth) 혹은 ‘내 놓다,’ ‘표하다’(present)의 그리스어 ‘Technē-poietike’를 나타낸다.¹⁶⁾ 시학과 동일개념에서 출발된 건축은 그래서 사람이 실체와 그로 구성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특히 “실체들의 존재적 성격을 드러낼 뿐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세계내 존재’(being-in-the-world)로의 영역을 깨닫도록, 즉 시적으로 거주하도록 해준다.”¹⁷⁾ 다시말해, 세계는 항상 존재적으로 ‘주어진 것’(what is given)과 ‘잠재되어 있는 것’(what is withheld)으로 동시에 구성되어 있으며, 거주한다는 것은 장소가 지닌 이러한 존재적 구조들과 요소들을 모으고 다시 구성하는 것으로, 이러한 장소의 창조가 바로 숄츠가 이해한 건축의 존재 목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건축을 한다는 것은 형태의 구성을 의미하고, 그 구성은 다시 형태나 양식언어(language of forms or style)의 적절한 사용에 의해 기능에 따른 형태 차이를 가능하게 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볼때, 문학에서 의미전달적 매체로 사용되는 문자언어와 같이 건축에서의 의미전달적 매체인 형태언어란 숄츠의 아래 글에서 처럼 우리가 ‘명명할 수 있는 실체’(nameable thing)에 바탕을 두고있다.¹⁸⁾

Massachusetts: MIT press, 1990.

- 16). 시학(poetics) 혹은 ‘Technē-poietike’이란 말의 어원적 의미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은 대한건축학회논문지 94년 6월과 7월호에 발표된 필자의 글을 참조.
- 17). “It [poetry] reveals things as they are, and enables man to realize the scope of his being-in-the-world; to ‘dwell poetically.’” C. N. Schulz. (1989), p.13.
- 18). 숄츠의 실존-현상학적 관점에서 볼 때, 현대건축(Modern architecture)을 대표하는 설리반(Sullivan)의 표어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Form follows Function)는 궁극적으로 형태와 기능을 연결시켜주는 수단적 방법을 설명하지는 못하였으며, 그로피우스(Gropius), 미스(Mies van der Rohe) 그리고 코르브지에(Le Corbusier)에서도 비록 원칙을 세우려는 노력

“언어를 통해 세계는 그 자신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 세계는, 어떠한든, 낱말뿐 아니라 이미지로 혹은 일반적으로 작업을 통해 그 자신을 표현한다. 우리는 실체들 아래나 그 사이에 존재할지 모른다는 점에서, 오직 ‘작업을 통한 경화(硬化)’(setting-into-work)만이 우리의 환경이 이해되어질 수 있는 세계, 즉 의미를 지닌 주체를 고려한 세계로 유지되고 변형되어질 수 있는 [순간변환이 가능한] 현상들이다. 이러한 주체들을 우리는 거주한다라고 부른다.”¹⁹⁾

4. 건축언어의 세가지 존재적 기초

숄츠는, 다시, 그의 저서 ‘거주의 개념’(The Concept of Dwelling)에서 위에 언급한 ‘장소’와 ‘거주’에 대한 철학적 사고를 건축적인 기능 개념으로의 치환을 통해 건축언어의 존재적 기초를 규정하려 하는데, 이에 대한 세가지 기본적인 ‘인간기능’(human functions)을 ‘소재인식’(Orientation), ‘주체인식’(Identification) 그리고 ‘기억’(Memory)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어, 본 장에서는 이러한 기능에 대한 개론적 조사를 하도록 한다.

“소재인식(Orientation)은 행위의 틀을 의미하며, 공간조직과 관계되어 있다. 주체인식(Identification)은 환경적 특성의 경험을 의미하며, 건축된 형태에 관계되어 있다. 기억(Memory)은 주체적 특성을 소유한 요소들이 인식되어짐을 의미하며, 그래서 건축적 실체와 형상에 관계되어 있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세가지 측면을 ‘어디에,’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으로 특징지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이런 존재적 기

은 있었으나 여전히 기능에 따른 건물형태의 차이를 만들어 내지는 못한 것으로 비평되어진다.

- 19). C. N. Schulz. (1986), p.15.

능들은 건축언어에 대한 (다음의) 세가지 영역들을 결정하기도 한다: 지형-해부학(topology), 혹은 공간적 조직; 형태학(morphology), 혹은 형식적 구조; 그리고 유형학(typology), 혹은 형상적 질.”²⁰⁾

거주의 세가지 사회적 기능 혹은 일반적 형식으로 술츠는 또한 ‘만남’(meeting), ‘동의’(agreement), ‘격리’(seclusion)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각기 기능들은 발생되어지는 장소에 따라 첫째 ‘도시공간에서의 정주’, 둘째 ‘단체의 설립 혹은 공공시설’, 셋째 ‘주택 혹은 주거’로 설명되어 질 수 있고, 그들은 다시 앞에 설명한 인간기능의 각 인식요소들에 상응되어 진다.

술츠의 건축적 개념인 인간기능과 사회적 기능의 각 인식요소들을 아래의 도표와 함께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술츠의 인간기능 중 공간상태를 지칭하는 ‘지형-해부학적’(topological) 용어는 불변으로 남아있는 기하학적 형상을 지칭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본래 건축보다 지리학적 용어에 속한다 할 수 있다.²¹⁾ 이 경우 린치(Kevin Lynch)의 ‘공간구조들’로서 제시되는 ‘결절점’(node), ‘통로’(path), ‘경계’(edge) 그리고 ‘구역’(district) 등은 동일개념으로 규정될 수 있어, 이러한 ‘소재인식적 기능’은 환경에 대한 이미지를 구성할 때 결정적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감성적인 보호인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시말해, 각각의 장소가 자연적으로 지니게 되는 구조적인 성격은 그 스스로 소재-지향에 대한 자체의 시스템을 내포하게 되는데, 건축가들이 이룩하려는 지역의 독자적인 문화성 또한 이러한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룩하고 그로인한 ‘거주’에 대한 방법의 차이를 찾을때 가능할 것이다.

‘형태학적 용어’(morphological terms) 또한 마루, 벽, 지붕 등처럼 건물의 구조적 요소들이

나 기술적 방법들을 가리키며, 위의 용어와 같이 어떤 정확한 형상적 주체를 지칭하지는 않기 때문에 ‘반-구체적’(semi-concrete)인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주체인식적 기능’은 인간과 장소의 관계에 대한 독립된 측면인 반면 환경에 대한 의미론적 경험을 통해 인간에게 소속인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체계’(perceptual schemata)를 통한 사람들의 주체인식은 항상 어린시절부터 습득되어 지며 동시에 경험에 대한 미래의 진로를 결정하기도 한다.²²⁾ 다시말해, 인식체계는 지역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조건지워지는 내재적 인간경험의 보편적 현상으로, 사람들의 세계에 대한 인식방법을 결정할 뿐 아니라 그들의 존재성이 머무는 세계로의 접근을 가능토록 한다. 그래서 초기 현대건축이 우리에게 보여준 환경에 대한 감성적 이질감은 그것이 주체인식보다 ‘소재인식적 기능’에 더욱 큰 관심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기억기능’에 상응하는 ‘유형적 용어’(typological terms)는 사실적이며 구체적이다. 그들은 인간이 만들어 낸 환경속의 모든 실체들을 가리키며, 그것의 의미성은 ‘형상적 질’(figural qualities)에 의해 조건지워 지는데,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잘 알려진 건축적 용어들로 tower, wing, porch, dome, gable, house, temple, hall, square, street, neighborhood 등을 들 수 있다.²³⁾ ‘기억기능’에 속하는 ‘유형학적 형상들의 세계’(a universe of typological figures)에 대한 강조는 우리가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주로의 성격을 전달해 주는 매개체로서 그 중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유형학적 영역을 이해하기 위해 명명되어진 ‘실체’, 즉 건축에 있어 기본적인 ‘형상’(figures) 혹은 ‘원형’(archetypes)들의 앞선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상 또한 우리의 기억들이란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으로서의 ‘인식’(recognition) 이후에 얻게되는 것들로 우리

20). Ibid.. p. 15-17.

21). Ibid.. p.18.

22). Ibid..

23). Ibid.. p.17.

의 존재성 인식은 바로 기억들의 모음으로 술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²⁴⁾

“건축적 형상들이란 인식되고 기억되어지는 실체들의 일상적인 세계에 속해 있으며, 기억에 대한 존재적 기능을 맡고 있다. 인생은 기억들, 즉 우리에게 접근 가능한 실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 건축언어란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억에 대한 언어인 것이다.”²⁵⁾

| 인간기능 | 사회적 기능과의 관계 | 건축 언어 | 의미의 지시 | 관계조 직 | 인식의 제공 | 지시대 상 |
|-----------------------|-------------|--------------------|---------------|--------|----------|-------|
| 소재인식 (Orientation) | 만남 | 지형 해부학적 (topology) | 행위들의 틀 | 공간적 조직 | 감성적 보호인식 | 어디에 |
| 주체인식 (Identification) | 동의 | 형태학적 (morphology) | 환경적 특성의 경험 | 형식적 구조 | 소속인식 | 어떻게 |
| 기억 (Memory) | 격리 | 유형학적 (typology) | 주체특성적 요소들의 인식 | 형상적 질 | 존재인식 | 무엇을 |

여기에서 ‘인식’은 ‘형상’들을 의미하며, ‘거주’에 대한 표상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장소를 구성하는 것은 그 장소의 지형-해부학적 그리고 형태적 구조들이며, 특히 ‘장소성’을 표현하기

위해 이러한 구조들은 ‘유형학적 형상들’(typological figures) 안에서 표상되어야 한다. 형상 또한 과학적으로 함축되어진 것과는 달리 인식의 과정을 통해 생산되어진 ‘실체’, 즉 특정의 어떤 것이나 그 어떤 것들을 지칭하고 표상하는 기호나 상징이 아닌, 이미지들과 같은 것이며, 세계를 모으는 ‘실체’들 중의 ‘실체’로 다양한 의미와 해석을 허용하게 된다. 그것은 다시말해 산재되어 있는 여러 구성요소들을 일원적 모양으로 조합함으로써 인해 존재의 세계를 열어 냈과 같을 것이다.²⁶⁾

4. 결론

현대건축(Modern architecture)의 실패는 건축의 역사적 양식과 형태에 대한 언어들에 거부한데 있으며, 그로인해 무-특성이나 독단으로의 이미지만을 남겨 놓았을 뿐이다. 건축이라는 어휘의 근원적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때, 건축의 역할은 그것이 지닌 전통적인 언어의 방법을 통해서 장소성의 회복과 인간의 존재(Being)를 들어내어 놓는 것으로, ‘후기-현대’(Late-Modern) 건축가들도 이러한 점에서 동일한 비평적 조건하에 남아있다. 여기서 건축언어란 우리가 환경을 경험하는데 있어 그것을 사물 그 자체에서 보다 의미를 지닌 무엇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와 같은 것으로, 인간이 지상위에 거주하도록 도와주는 구

24). 다른 한편, 일부의 ‘포스트-모던’(Post-Modern) 건축가들이 강조하는 상징적 기호기능으로 ‘디테일’(detail)은 술츠에게 있어 요소라기보다는 그들에게 구체적 출현을 제공하는 어떤 것, 혹은 미스(Mies van der Rohe)의 “신은 디테일에 존재한다”는 언명처럼 인간에게 육체나 감성적 성격을 부여함과 같은 구체화로 본질적 명료함을 이루어 내는 진행과정과 같다. 비록 디테일은 경우에 따라서 형상적 가치를 획득하기는 하나, 본래 형태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형상들을 모아 어떤 상태로 세우고 그것의 새로운 무게와 색을 지니게 함과 같은 ‘작업을 통한 경화(硬化)’(setting-into-work)의 과정 중 일부로 이해되고 있다. Ibid. p.19.

25). Ibid.

26). Ibid.. 다시 술츠는 건축적 형상들을 탐과 교회의 탐의 차이처럼 ‘개괄적 유형’(general types)과 ‘기능적 유형’(functional types)으로 구분하고, 기능적 유형은 개괄적 형상들 내에서 특정의 형식들(modes)을 지시하는 반면, 개괄적 유형은 ‘원형들’(archetypes) 혹은 ‘원형적 형상들’(archetypal figures)로 불리울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원형들은 여러 표명 가능성들을 지니고 있어 기능적 형상으로의 상상적 근원일 뿐 아니라, 건물을 디자인 한다는 것은 바로 필요에 의해 선택한 원형적 형상들의 적절한 조합을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기능적 유형이란 이같은 표명들의 부분집합과 같으며, 특정의 장소와 시간의 성격에 의해 표명되어지게 된다.

체적인 '실체'들인 동시에 무엇보다 언어가 지닌 명명성(命名性)으로 그의 존재를 명언하게 표상해 내는 '온갖 것의 어미'가 된다.²⁷⁾

슐츠에게, 건축언어란 창조되어지는 것이 아니며, 현 시대와 장소의 필요에 의해 선택되어지는 것으로, 복잡하게 형성된 혼합체와 같은 현대사회에서 건축행위는 그 사회에 주어진 조건 속에서 원형적 형태들이 형성하고 있는 시적 질서성을 찾아내고 재-해석하는 행위로 설명하고 있다. 시적 질서성 혹은 이를 구성하는 시학이란 언어라는 의미전달의 매체를 통하여 인간의 존재적 의미를 찾아내고 그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는 행위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구질 뿐 아니라 세계를 그 자체로 출현시킨다. 이런 점에서 건축 또한 그것이 지닌 본질이나 그것을 형성하는 구성방법에 있어 시학에 속하며, 그 목적은 하이데거의 사색처럼 인간이 지상에 시적으로 거주하도록 돕는 것이라 생각된다.

건축에서뿐만 아니라 문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고도로 함축된 인간의 존재적 언어들의 시적구성과 그를 통한 작가가 경험하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세계의 형상화에 대한 강조는 이탈리아의 문학가 이탈리아 칼비노(Italo Calvino)의 소설 '보이지 않는 도시들'에서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다.²⁸⁾ 마치 그리이스 신전에서 건축의 존재적 언어와 같이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보여주는 통합된 조화는 그의 짧은 소설에서도 사막의 모래알들과 같은 글자와 부호 그리고 문단들의 시적 사용으로 바람을 맞아 누워있는 사막의 모래언덕처럼 동일하되 동일치 않은 그 표면위에서 세계의 무한한 변화를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의 이동 속에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세계를 연결하는 존재의 원형들을 발견하기도 하며, 다시 역으로 현재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존재인식'을 경험하게도 된다. 이같은 경험은 바로 작가가 지닌 상상의 가시성을 통한 '보이지 않는 것'(추상)을 '보이는 것'(구체)으로 아름답게 표상하는 언어기호적 치환 혹은 언어의 시적구성을 의미한다.

칼비노에게 있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치환하는 힘은 선택된 언어들의 구성적 성격에 의존되어 있는 반면, 무엇을 보이도록 할 것이냐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항상 조정되어 있다. 그래서 무엇이 보여지기까지는 보이지 않은 존재의 역할이 잠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잠재된 영역은 바로 우리의 삶, 즉 문명의 외적 형태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현상과 그 본질에 대한 그리고 실재 세계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모색을 통해 그 내부에 감추어진 인간존재의 모든 형태와 그 의미들인 것이다. 결국 칼비노의 창작은 슐츠의 건축적 사색과 동일하게 우리 외부에 절대적 객체로 존재하는 세계를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현상의 발견과 재해석 그리고 이러한 언어들의 재구성 작업을 통한 과거와 현재 그리고 존재 가능한 미래세계의 표상과 형상화에 남아있다.²⁹⁾

슐츠의 '장소' 또한 건축의 존재적 '실체', 즉 건축언어들의 모음을 통해 그 자체의 구체적 출현을 구성하게 되며, 장소에 따라 이렇게 모여진 존재적 구조들은 바로 'genius loci'를 형

27). '온갖 것의 어미'란 김용욱 (1989)이 번역한 노자의 첫 시귀의 중간부분에서 인용한 것으로 언어의 표상성에 대한 논 학회자 1994년 6월호에 게재된 필자의 논문을 참조.

28). 이탈리아 칼비노는 1923년 10월 15일 쿠바의 아바나 교외인 산티아고 디 라스베가스에서 태어났다. 두 살 때 이탈리아로 돌아온 그는 스무살 까지 산레모에서 살면서 반 파시즘과 자유로운 사상 속에서 성장하였으며, 독일 점령기에는 공산주의 운동에 가담하였으나 1957년 탈퇴하고 여러 문학활동을 통하여 1972년 '보이지 않는 도시'를 출간 펠트리넬리 상을 받았다. 이탈리아 작가중 가장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하였다는 평을 받고있는 그는 1985년 사망 하였으며 그의 여러 작품중 1988년 그의 유고집 'Six Memos for the Next Millennium'이 부인에 의해 Harvard 대학에서 출간되어 현재 널리 읽혀지고 있다.

29). 칼비노의 문학적 특성에 대한 비평적 관점은 박상진 번역 '보이지 않는 도시들' 중 번역자의 개인적 논고 '칼비노의 환상작업과 세계인식, 그 드러냄'을 참조하고 있음.

성하게 된다. 숄츠는 이러한 초월적 현상들이 지각의 대상을 형성하는 통일적 구조로의 형태(Gestalt)와 작업의 형상적 질(figural quality)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시말해, 현 세계의 심미화나 상징화만이 건축가의 역할이 되어질 수는 없다. 현대건축이 보여주는 “예술이기 위한 예술 그 자체”(art for art’s sake)³⁰⁾의 태도보다 과거에 대한 전통과 미래에 대한 바람을 “현시간의 투명성”(time-present transparency)³¹⁾ 속에서 재조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시대와 장소가 지닌 존재적 언어들을 찾아내고, 다시, 이러한 가치들을 반영하는 윤리와 도덕적 의미들을 건축물을 통해 아름답게 표상해내는 시학으로의 끊임없는 노력이 새로운 표현적 방법으로의 여러 ‘-ism’에 대한 논의보다 지금에 더욱 중요하게 받아들여 진다. 우리의 건축환경이 그래서 이러한 언어들을 내포하게 될때 그 자체로 이름지워지고 이해되어지는 ‘실체’로 출현하게 되며, 이같은 환경의 변이가 바로 ‘작업을 통한 경화(硬化)’(setting-into-work) 혹은 ‘건축의 작업’(work of building)으로, 숄츠가 현대건축의 새로운 사색적 방법과 의미론적 용어로 제시하는 ‘시적 거주’를 실로 의미하게 된다.

30. Conrad Jameson. (1990), p.26-33.

31. T. S. Eliot. (1971).

참 고 문 헌

1. Anthony C. Antoniades. *Poetics of Architecture*.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1992.
2. Italo Calvino. *Invisible Cities*. New York: HBJ Book. 1974.
3. _____. *Six Memos for the Next Millennium*.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1988.
4. Umberto Eco. "Interpretation and History." in Stefan Collini (ed.), *Interpretation and Overinterpretation*. Cambridge, 1992.
5. T. S. Eliot. *Four Quarters*. New York, 1971.
6. Hans-George Gadamer. *Truth and Method*. New York, 1991.
7. Martin Heidegger. *Basic Writings*. David Farrel Krell (trans.), New York, 1977.
8. _____. *Poetry, Language, Thought*. Albert Hofstadter (ed.). New York, 1971
9. Conrad Jameson. "The Super-Modern Defence: An Open Lettwer to Charles Jencks." *Architectural Design*, vol60, 1990, p.26-33.
10. David Leatherbarrow. *The Roots of Architectural Invention*. Cambridge, 1993.
11. Kevin Lynch. *The Image of the City*. Mass., 1960.
12. Christian Norberg-Schulz. *Intention in Architecture*. Massachusetts, 1965.
13. _____. "Kahn, Heidegger and the Language of Architecture." *Opposition*, no.18, Fall 1979.
14. _____. *Genius Loci: Towards a Phenomenology of Architecture*. New York, 1980a.
15. _____. "Where is Modern Architecture Going?" *GA Document*, no.2, 1980b.
16. _____. "Genuis Loci - Spirit of Place." *AD* 7-8, 1980c.
17. _____. *The Concept of Dwelling*. New York, 1985a.
18. _____. "On the Way to a Figurative Architecture." *GA Document*, no.14, 1985b.
19. _____. "The Demand for a Contemporary Language of Architecture." *Art & Design*, December 1986.
20. _____. *Architecture: Meaning and Place*. New York, 1988.
21. _____. "The Two Faces of Post-Modernism." *AD*, 1989
22. 에드문드 훗설. 이영호, 이종훈 옮김. *현상학의 이념 / 엄밀한 학으로서의 철학*. 서광사, 1989.
23. 김용옥 번역. *노자: 길과 얻음*. 통나무, 1989.

Poetic Dwelling and Word-Semiotic Substitution of Being-in-the World

- Critical Interpretation of Modern Architecture through C.N.Schulz's 'Genius Loci' -

Byun, Tae Ho

(Sung Kyun Kwan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ABSTRACT

The language of architecture is a kind of tool which helps people to experience the environment not as the thing itself but as a meaningful one. It, gathered by place, constitutes '*genius loci*', as the existential structures. It, in other words, gives a thing 'cognitive quality', and serve people to 'dwell' because "a place is a gathering thing with concrete presence." Our environment, only when it possesses the language, presents itself as a namable thing or an understood world. Such a meaningful identification is dwelling.

The modern world is a complex melting-pot. It is 'complexities' and 'contradiction.' The language of architecture is never created, rather it is selected by needs of the time and the place. In this sense, architectural design means discovery and interpretation of the poetic order of architypal form and style, and the poetic order is a way for people to dwell in the humanistic sense. These reminds me of Martin Heidegger's statement : "Architecture belongs to poetry, and its purpose is to help man to dwell."